

Letter from Editor

정보통신학이라 한다면 조금은 생소한 말인 것은 틀림없다.

원래 통신이란 것은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정보의 授受 그 自體를 지칭하게 되므로 世上 有到處에 通信 아닌 것은 없다고 하여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遺傳子 (정보)의 次世代 傳達 過程도 통신행위요, 개미가 먹이를 찾을 때 pheromene액이라는 분비물을 따라 찾아가는 생존본능, 꿀의 위치를 알리는 꿀벌의 dance도 곧 通信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언어,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五感이외 六感까지도 통신작용이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범위를 압축했을 때에는 전기현상을 이용한 정보 전달, 다시말하면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만을 지칭하게 된다. 전기통신의 특징은 encoding이나 변조과정을 거쳐 적어도 광속도에 준하는 속도로 원거리(Tele)에 전달(communication)하며 정보를 수동적으로만 충실히 전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의 기능과 정의 자체도 변화하고 있다. 물론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변천이 새로운 통신 개념의 창출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기통신이 그 전달내용을 저장시키거나 가공처리하는 기능이 미약하였지만 새로운 통신체계는 디지털 기술과 컴퓨터 및 반도체의 기술혁명에 힘입어 저장은 물론 필요한 과정을 거쳐 판단처리가 가능한 통신으로까지 진일보하게 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통신은 통합이 되고 인간이외 기계까지로 그 대상이 확장되었으며 세계는 물론 우주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내년 1985년은 우리나라에서 전기통신이 도입된 지 100년이 되는 기념비적 시점이 되겠다. 개항기 선각자들의 노력의 결실이 채 맺기도 전에 좌절을 겪어야 했던 역사적 반복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역사특집호를 꾸몄다. 특히 통신 인맥에 관한 심층기획, 대표로 본 역사, 화보 구성 등은 이제까지 통신발달사적 측면에 보아서도 획기적이라 평가될 수 있는 사료들을 발굴 게재한 것으로 그동안 학계의 연구성과의 한 결실이라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또한 정보통신의 고전적 참고서가 될 「노라 맹끄」의 보고서 번역 전제, 통신발달 측면으로 본 경제발달사, 「세계 전기통신 기술발달사」 등 주옥같은 논문을 게재하여 정보통신학의 확립과 역사발달을 재조명하였다. 이는 이 분야의 학술 발전은 물론 통신에 이해를 가진 전문가, 대중홍보매체 종사자들에게 보내는 학회의 메시지임을 감안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학회의 임무요, 소명임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술단체의 힘겨운 몸부림에 도움을 준 체신부, KTA 및 정보시대에 감사 를 드린다.

1984. 12.

편집인 **진 용 옥**